

특집

86년도 국내외 경제변동과 양돈산업



허 신 행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연구위원겸 정책연구실장)

I. 세계 경제 변동과 전망

양돈산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세계의 경제변동과 상당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 가지는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확대에 따른 돼지고기 소비증가요, 또 다른 것은 국제 원자재, 즉 사료곡물의 수입가격이 돼지 생산비와 직결되어 있는 점이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시킨다면 돼지고기의 수입개방 및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무역문제가 꼽힐 수 있겠다.

세계경제는 1984년에 4.0%, 85년에는 2.7% 성장하였는데 86년에는 많은 연구기관들이 3.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85년의 2.7% 성장에 비하면 86년의 3.0% 성장은 분명 완만한 회복세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동안의 노동력 증가를 모두 흡수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그런데다 세계 선진제국의 실업율이 9.0%(일본은 2.7%로서 예외)를 넘어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정책을 견지함으로써 성장세가 둔화되고 산업조정

의 압박으로 신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키고 있다.

한국의 주수출국인 미국 경제는 86년에 일단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나 3.0%의 성장수준으로 머물게 될 것으로 내다 보인다. 그래도 85년의 2.6% 성장율에 비하면 약간 높긴 하지만 문제는 미국의 정가에서 불고 있는 신보호주의 바람인데, 이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에 대한 수출시장의 확대가 쉬운 과제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제국의 신보호주의는 우리나라 상품의 해외시장을 위축시키려 들 것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이러한 보호주의 바람을 누르고도 남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수출둔화와 국내경기 침체를 동시에 몰고 오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하여 실질소득이 1%씩 감소할 때마다 돼지고기의 수요는 0.78%씩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수출신장을 위해 모두 노력해야 될 줄로 안다.

다음 사료곡물을 중심으로 한 국제원자재 가격은 앞으로 2~3년간 약세를 유지하리라는 전

”우리나라는 양돈산업이 효율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일본이나 싱가포르에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과제도 연구해 보아야”

망이다. 그 주된 이유는 수출국들의 생산성 향상과 증산으로 공급이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는데 반

해서 원자재 수입국들은 자원절약형의 산업 구조로 개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 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될 요인은 없지만, 오히려 사료곡물이 저렴하게 수입된다면 국내 자원의 활용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한국축산이 발전된다는 아이로니가 가로 놓이게 된다.

그리고 돼지고기의 교역에 관한 한 86년에도 어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세계에서 지금 돼지고기의 재고량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EC 구주공동체의 회원국들인데, 그들이 오랜 기간 보호 장벽을 쌓아두고 우리나라의 농산물을 수입해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산품 수입도 별로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더러 돼지고기를 수입하라는 압력을 넣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생산비가 외국산에 비하여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돼지고기를 수입해 들일만한 명분도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효율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이웃 일본이나 싱가포르에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과제도 연구해 볼 만하다. 그러나 이것도 86년에는 실현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그 주된 이유는 일본의 높은 비관세장벽과 싱가포르 경제의 심각한 침체에 있다. 물론 돼지고기의 수출과제는 시간을 두고 연구해 볼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II. 국내 경기 전망

세계 경제변동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기관들이

전망치를 내 놓고 있어서 그런대로 판단하기가 쉬운데 국내경제전망은 그렇지 못한 아쉬움을 남

긴다. 그만큼 경제학자의 예측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도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시장이며 원자재시장 등 해외요인을 많이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안정을 유지시켜야 된다는 경제외적인 부담까지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고급인력의 실업문제까지 겹치는 바람에 어려움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의 경제성장을 돌이켜 생각해 보건데 어느 한 해라도 이러한 어려움이 가신적은 없었다. 이 말은 우리 국민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을 달성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정부나 민간 연구 기관에서 86년의 한국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치를 내 놓고 있다. 그것은 대체로 6.0~7.0% 사이에 놓여 있다. 예측기관 사이에 나타난 1.0%의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상승 정



도에 있지 하강 여부의 논쟁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수출증가율도 8.5%에서 10.7%로 전망하고 있으며, 도·소매물가도 2~4%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나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환경이 옛날과 다르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또 모두가 외채의 증가를 두려운 눈초리로 바라다 보고 있다. 이와 같은 긴장으로 경비절약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수입상품 안쓰거나 외채절감에 대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결국 GNP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변동에 민감한 고급축산물의 소비가 둔화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새해에도 쇠고기, 우유 등의 소비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견된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돼지고기의 소비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Ⅲ. 양돈산업의 전망

양돈산업은 지금 호황기에 깊숙히 파묻혀 있다.

그러기에 돼지를 기르는 사람은 누구나 높은 수익성을 보장받고 있는 셈이다. 이런 기간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바로 지금 호황의 절정에 도달해 있다는 것 자체가 다음 해의 위험을 불러들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수익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한 사육두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사된 돼지 사육두수를 관찰해 보더라도 지난 6월의 283만두에서 불과 3개월 후인 9월에는 301만두로 6.7%나 증가하고 있다. 모돈수도 6월의 41만두에서 9월에는 42만두로 1.9% 증가하였다. 만일 돼지의 사육두수가 이런 추세로 계속 증가한다면 86년 6월에는 380만두 수준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내다 보인다. 모돈수도 50만두 가까이 늘어나서 반감지 않은 불황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돼지 가격의 조기변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1984년 초에 불황의 밑바닥인 최저가격이 나타났으니까 여기에 32~36개월의 1주기를 가산해주면 다음의 최저가격인 불황은 86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가격만큼 비교적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변동하는 주기변동도 없기 때문에 일단 86년 여름의 불황세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견지해 둘 필요가 있다. 미리 알고 대처해 나가는 것은 양돈가의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돈용 배합사료의 생산실적은 최근에 현저한 증가를 나타내지 않고 있지만 축협이 조사한 증가의 사육의향 결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이유는 주로 지난 2년간에 걸친 호황과 소값파동에 따른 소사육농가의 돼지사육 선호에 있는 것 같다. 농민

“현재의 추세대로 돼지사육 두수가 계속 증가한다면 올 6월에는 380만두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들의 이러한 의향이 86년 6월의 불황세에 따라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잠재력은 대단히 크다고 봐야 한다.

실제 1985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나타난 돼지 사육규모별 두수동향을 보더라도 50두 미만의 농가는 규모를 2.0% 내외로 줄였고, 100두 이상의 전·기업농은 12.0% 이상 규모를 늘렸다. 결국 부업양돈가의 위축 외에 전·기업농의 성장이라는 경제집중 현상이 양돈산업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문제는 효율성과 균형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

세상 일이 다 그런 것이지만 양돈산업에도 예

기치 못했던 사건이나 돌발적인 요인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돼지에 질병이 발생한다면 든지 다른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면 86년중반의 양돈업불황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또는 쇠고기라든가 닭고기 등 대체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더 소비하게 되는 경우 의외로 사정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양돈인 스스로 모돈과 함께 비육돈의 사육두수를 감축시켜 나간다면 86년도 역시 호황의 해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IV. 양돈인의 대응자세

사람이 경험을 통해 어떤 지혜를 터득해 냈다면 그 지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가치를 빛낸다. 더우기 그 경험이 돼지가격의 주기 변동처럼 반복되는 쓰라린 것이라면 불황으로부터 오는 손실을 극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과거의 거듭된 경험과 최근의 통계 자료들을

중심으로 예측해 보았을 때 앞으로 반년 남짓 지나면 우리 양돈업계에 다시 불황이 오게 되리라는 사실까지 알아냈다. 그런데도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면 우리 스스로 능력의 한계를 들어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양돈업은 양돈인 모두의 것이다. 이 업이 번영한다 해서 그 혜택이 타산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또 양돈산업에 불황이 온다고 하여 타산업에서 보상해줄 바도 없다. 그렇다면 양돈인 모두가 솔선하여 앞장서야 한다.

지금 전국에 있는 돼지 사육농가는 29만호에 달한다. 이 가운데서 100두 이상을 기르는 농가 내지 전·기업농은 불과 5천호밖에 되지 않는다. 이 5천의 양돈인만 한데 뭉치면 돼지 과잉생산 썸이아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협조체제를 갖추고 「사육규모 늘리지 않기 운동」이라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겨울철 환기시설

Productivity
Thru
Automation

- * 동절기 환기는 인력이나 단순한 송풍기의 기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동화된 고창의 환기시설은 겨울철 돈사 환경을 맑고 깨끗하게 개선하며, 동시에 밀폐보온에 의한 가축의 체열을 보호하여 온화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 줍니다. 동절기 사료효율 부진과 호흡기 질병으로부터 귀하의 수익을 보호하십시오.

百聞이 不如一見

- * 전국의 수백개 돈사가 이미 고창의 자동화시설에 의해 맑고 따뜻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의 설치농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 * 고창은 오랜 경험을 통해 완 자동화시설의 원조

 **고창축산기계**
☎ (서울) 583-2550 / 7076